

2 國內景氣

減速成長에 過消費 우려

姜 光 夏

〈서울大學校教授·經博〉

I. 1986 년의 景氣現況

韓國銀行의 잠정추계에 따르면 1986년 3/4분기 GNP 成長率이 14.1%에 이르러 1979년 이후 최고의 成長率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의 成長率은 당초의 豫想值인 7%를 훨씬 넘어 1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成長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原油價格下落, 國際金利引下, 「달러」貨 下落의 소위 3低의 好機를 맞아 輸出이 계속 好調를 보임에 힘입어 製造業이 急伸長하고 機械設備投資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表-1〉참조).

原油價下落에 따른 輸入減少와 輸出增大에 의해 貿易收支黑字를 처음으로 실현하는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1986년은 經濟政策의 目標라고 볼 수 있는 物價安定, 高度成長, 國際收支黑字의 소위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成果를 보여 주게 될 것 같다.

前年同期比 成長率

〈表-1〉 (單位: %)

	1985		1986	
	3/4분기	1~9월	3/4분기	1~9월
국민총생산 (GNP)	5.3	4.7	14.1	12.0
(제조업)	2.6	2.9	17.9	15.5
최종소비지출	4.4	4.9	6.5	6.3
(민간)	4.4	4.5	6.5	6.4
(정부)	4.7	7.0	6.4	5.8
총고정투자	1.3	2.1	13.5	14.2
(기계설비)	0	3.5	22.8	23.1

올해의 高度成長의 原因을 보면 外部的으로는 世界經濟의 회복과 「엔」貨의 강세에 따른 輸出環境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內部的으로는 그동안의 物價安定과 生産性向上에 대한 노력의 결과 생겨난 輸出競爭力의 향상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3/4분기까지의 輸出額은 FOB價格으로 247억달러에 이르러 前年同期에 비해 19.1%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表-2〉參照).

品目別로는 機械, 電子, 신발 등이 40% 내외의 增加率을, 섬유가 25%의 伸長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地域別로는 美國, 歐洲 등으로의 輸出이 증가하고 있다.

輸出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 生産도 증가하였는데 3/4분기까지의 生産增加率은 16.7%, 出荷增加率은 16.0%를 나타내고 있다. 部門別로 보면 組立金屬(30.8%), 고무제품(19.3%), 非鐵金屬(21.1%), 電氣器機(56.1%), 機械(25.1%) 등이 큰 幅의 增加率을 보여주고 있으며 食料品(6.7%), 飲料品(2.4%), 木製品(-5.3%), 衣服(7.4%) 등이 弱勢를 보이고 있다.

消費와 投資部門을 보면 消費의 增加率은 그리 높지 않은데 비해, 投資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機械設備에 대한 投資는 3/4분기까지 23.1%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機械設備投資의 증가는 資本財의 輸入增加를 가져왔는 바 全體輸入額은 CIF價格으로 3/4분기까지 232억달러로서 6.9%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비해 內需用 및 輸出用原資材의 輸入은 약 50% 정도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輸入品을 代替할 만한 國產資本財가 없는

<表-2>

(比前年同期, 百萬弗, %)

	生産	出荷	輸 出(FOB)		輸 入(CIF)		經常收支	貿易收支
	增加率	增加率	總額	增加率	總額	增加率	總額	總額
1986. 1 ~ 9 월	16.7	16.0	24,709	19.1	23,224	6.9	2,516	2,441

<表-3>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도매물가상승률	38.9	20.4	4.7	0.2	0.7	0.9
국내저축률	20.8	20.5	20.9	25.3	27.9	28.4

것에도 연유하지만 內外金利差에 따른 金融 등 導入條件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한편 原油輸入額은 油價下落에 의해 40%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消費財의 輸入增加率は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난 몇 년간의 物價安定과 貯蓄에 대한 認識의 변화로 國內貯蓄率은 계속 提高되어 왔으며 이에 덧붙여 輸出의 好調와 輸入의 增加勢鈍화로 國際收支는 3/4분기까지 약 25억달러의 黑字를 나타내고 있어 처음으로 맞는 黑字時代의 經濟運營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올해의 高度成長은 그 대부분이 外部的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油價, 國際金利, 換率, 貿易環境 등에 관한 經濟與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成長할 수 있는냐가 결정될 것 같다.

그렇다면 87년의 景氣展望은 이상의 몇 가지 主要經濟變數에 대한 展望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셈이다.

II. 1987년의 國內景氣豫測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87년의 國內景氣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經濟變數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原油價格은 약간의 기복은 있겠지만 대체로 18달러 선에서 安定勢를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國際金利도 뚜렷한 上昇要因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다소 상승하든지 아니면 現水準을 유지하는 선에서 安定될 것 같다. 이에 따라 世界經濟도 완만한 上昇局面을 보일 것이므로 國際交易量도 그런대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國際環境下에서 우리나라 經濟는 國際收支黑字에 따라 높은 수준의 投資를 유지할 것이고 投資增大에 힘입어 高成長, 高所得의 과정을 거쳐 다시 貯蓄 및 投資가 증대되는 成長계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國際收支黑字는 輸入能力的 증대를 뜻하므로 적절한 輸入計劃에 의해 物價安定을 이룩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國際競爭力을 더욱 提高할 수 있게 되어 輸出이 증대되고 다시 投資가 활발해지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樂觀的인 예상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의 經濟運行을 설명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과연 앞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問題點이 負擔이 되고 있다.

첫째, 國際收支黑字에 따른 國內通貨供給量을 어떻게 원활하게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黑字時代의 通貨供給管理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잘못하면 外換인플레이 또는 通貨供給過多 속의 부분적인 國內信用不足現象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둘째, 그동안 낮은 增加率를 보이고 있던 消費部門이 87년에는 사치재 및 고급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國民所得의 增加分이 輸出關聯企業에 집중적으로 割當된 셈이지만 앞으로 증가된 所得이 個

人所得 등으로 分配될 경우에는 消費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냉장고, VTR 등의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세째, 原油價의 上昇可能性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國際原資材價格의 上昇可能性이 크다. 뿐만 아니라 原資材의 確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輸入單價의 상승이 輸出單價의 상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째, 美國의 지속적인 國際收支赤字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市場開放壓力이 더욱 加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美國의 戰略을 보면 生産性이 떨어진 部門에 대해서는 輸入規制를 하고 農産物이나 서비스部門에 대해서는 市場開放을 요구하고 尖端産業部門에 대해서는 知的所有權 등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동시에 換率調整을 요구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對美輸出依存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美國의 압력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經濟成長과 所得分配不平 등에 따른 福祉增進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負擔能力을 초과한 財政支出增大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요와 負擔能力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상의 몇가지 問題點은 우리 경제의 成長速度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Ⅲ. 結 語

韓國經濟의 앞날을 밝게해 줄 수 있는 요인과 어둡게 해 줄지도 모르는 요인이 併存하는 가운데 87년의 國內景氣는 과연 어떠할까?

86년은 85년의 침체된 상황과 비교되어 높은 成長率을 보였지만 87년은 86년의 好況과 비교가 될 것이므로 成長率이 86년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86년의 成長은 內部的인 體質改善에 의했다기보다는 外部的인 量的擴大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87년에는 量的擴大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아 成長率이 둔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리고 86년의 生産性向上과 技術開發에 대한 노력은 88년 이후에나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80년 이후 계속되어 온 設備投資의 부진을 85년, 86년에 어느 정도 만회한 느낌은 있지만 87년에도 지속적인 投資增大가 필요한 만큼 消費를 억제하고 貯蓄 및 投資를 증대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經濟體質을 改善해 나갈 노력도 併行하여야 함은 再論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投資를 증대해 감에 따라 原資材의 輸入은 크게 늘어 가겠으며 國産代替의 可能性은 당분간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엔」高에 따른 成長效果는 輸出産業과 內需産業에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內需産業은 「엔」高에 따른 原價上昇要因 때문에 生産增加率이 輸出産業에 비해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內需産業인 食·飲料品, 木製品産業 등의 86년 成長率이 낮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産業構造가 더욱 輸出中心의 對外依存的인 것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設備投資 및 企業內 留保資金의 증가 등으로 아직은 증가된 所得이 個人에게 分配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차츰 分配되어짐에 따라 輸出産業이 아닌 內需産業도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의 증대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成長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87년은 86년보다는 낮은 成長速度로 消費增大 및 인플레이의 위험 속에서 國際收支赤字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망은 기본적으로 國內의 政治安定과 油價의 安定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예측이 틀리게 될 것은 自明하다. 經濟豫測 같이 어려운 것이 없다는 사실은 1984년말이나 1985년말에 1985년과 1986년의 景氣展望을 한 것이 얼마나 틀렸는가 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景氣展望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비록 틀릴 確率이 높은 것이지만 그래도 전망을 해 본다. ♣